

# 3000명 뽑던 5대 은행 정기공채, 4년새 1000명 이하로

### 인력 충원 필요한 부서별로 IT 경력 위주로 수시 채용 카드·보험업계도 성장정체에 신입직원 채용 소극적

〈1면에서 계속〉이런 현실과 달리 신입 취업을 준비하는 10명 중 7명이 금융권 기업에 취업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5일 취업 플랫폼 잡코리아가 신입직 취업준비생 569명을 대상으로 금융권 취업 선호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72.6%가 '금융권 기업에 취업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금융권과 각 사에 따르면 대부분 하반기 채용의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은행들은 비대면 업무 확대와 점포 축소, 인공지능(AI) 기술 도입 등 환경 변화에 따라 정기 공채 채용 규모도 줄고 있다. 정보기술(IT) 경력자를 중심으로 인력 충원이 필요한 부서별로 수시 채용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6월 은행권에 따르면 정기 공채를 통해 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으로 들어가는 문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코로나 이전 정기 공채 채용 인원이 2000~3000명대에서 이후 1000명 이하로 대폭 떨어졌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5대 은행의 정기 공채 규모는 △2018년 2979명 △2019년 2113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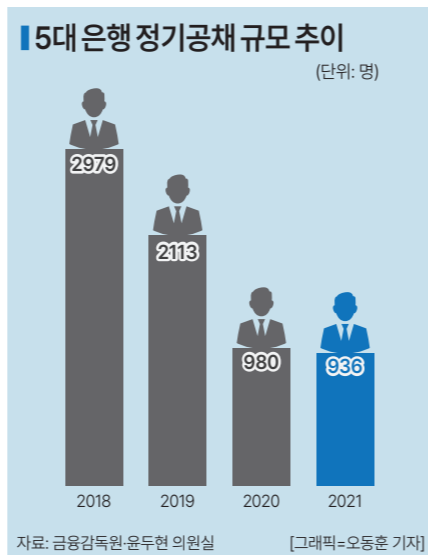
△2020년 980명 △2021년 936명으로 감소세가 뚜렷했다.

신한은행은 디지털 정보통신기술(ICT) 부문 등 분야별 수시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올해 4월까지 콜센터 포함 수시 채용으로 528명을 채용했다. 올해 채용계획에서 공채는 미정이다. 하나은행은 수시 채용 방식을 통해 필요 인력을 채용하고 있다고 한다. 상반기 40명 안팎 규모로 수시 채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KB국민은행은 올해 상반기 신입과 경력직 2000여명 규모의 채용을 진행했다. 은행 내 IT서비스 개발 및 운영, 자본시장, 직무전문가, 보험, ICT 등에서 채용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반기 채용의 경우 아직 계획이 나오지 않았다.

우리은행은 올 상반기 일반직 신입행원 채용을 실시했다. 채용 규모는 세 자릿수로 시중은행 가운데 가장 먼저 채용에 나섰다. 하반기 채용 계획은 미정이다. NH농협은행은 상반기에 일반과 IT분야로 나눠 450명 채용을 진행했다. 일반 분야는 광역사도 단위로 구분해 420명, IT분야는 30명을 채용했다. 하반기 채용계획은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급성장 중인 인터넷전문은행들의 경우



금융권 57개사가 참여하는 공동 채용 박람회가 8월 말에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8월 24일부터 25일까지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2022년 금융권 공동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2019년 열렸던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오른쪽).



정기 공채 없이 수시 채용으로 인력을 뽑고 있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그리고 토스뱅크는 지난해 각각 292명, 110명, 162명을 수시 채용했다. 이들 인터넷전문은행은 올해에도 정기 채용보다는 필요 직군별 수시 채용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카카오뱅크는 올해 4월까지 195명을 수시 채용했고 연내 164명을 더 뽑을 계획이다. 케이뱅크도 4월까지 52명을 채용했고 연말까지 65명을 더 채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토스뱅크 역시 4월까지 64명을 채용했고 이후 115명을 수시 채용할 예정이다.

올해 카드·보험업계도 시중은행과 마찬가지로 경력직 채용을 선호하고 신입의 경

우연 IT 인력 위주의 수시 채용 위주로 계획, 신입 공채에 대해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비용 효율화를 위해 구조조정을 단행했던 보험사와 카드사 대부분은 신입 공채 계획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보험사의 경우 대형사도 꼽히는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7개사 중 신입 공채 계획을 밝힌 곳은 현대해상 한 곳뿐이었다. 현대해상은 예년 수준인 약 30명 수준을 채용할 계획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업 성장에 정체 국면이고 매년 채용인원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올해 하반기는 특히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채용을 늘리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카드업계는 디지털 중심 인재 채용 분위기가 강해졌다. 금융업에 진출해 카드사와 경쟁 구도를 펼치고 있는 빅테크사와의 한판 승부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카드사들은 통상 하반기 1회 채용을 진행한다. 회사당 채용 인원은 20~30명 수준이다. 하반기 카드사 경영환경이 어두울 것으로 전망되면서 현재 구체적인 신입 공채 계획은 나오지 않았다.

카드사들은 인사 검증이 더 확실한 채용 연계형 인턴 등을 통해 신입 인력을 뽑고

있다. 대표적으로 현대카드사는 2010년부터 신입사원 정기 공채를 진행하지 않았다. 대신 채용전환형 인턴십 공채를 운영하고 있다. 현대카드는 인턴십을 통해 상품기획·마케팅, 전략, 재무, 경영지원 등 전 직무 분야를 대상으로 40명 규모의 인턴을 선발해 절반 정도를 최종 평가를 거쳐 정식 채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BC카드도 채용전환형 인턴 채용을 도입했다. BC카드는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카드 금융 시스템 개발, 플랫폼 개발, 디지털 서비스 기획 등 디지털 분야 우수 인재 채용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금리인상 등 경기 악화로 카드론 취급 실적이 올 1분기부터 크게 줄어들면서 각 사별로 긴축 경영에 돌입한 상황"이라며 "현재 상황에서 공개 신입 채용보다는 수시 채용이나 채용전환형 인턴 등으로 신입 채용 방식이 소극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번 가운데 8월 말 금융권 57개사가 참여하는 공동 채용 박람회가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8월 24~25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2022년 금융권 공동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은행 11개사, 보험 11개사, 증권 7개사, 카드 8개사, 금융 공기업 14개사 등이 참여할 계획이다.   
임한성 기자 hsrsm@skyedaily.com

## “탄소중립·인권가치” 롯데쇼핑 ESG 경영 핵심 세우다

### 첫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3개 주요 이슈 도출 “행복한 미래 만들어가기 위해 고객과 소통 지속할 것”

롯데쇼핑은 '2021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개하고 고객과 주주 등 이해관계자들과 적극 소통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는 2021년 11월 롯데쇼핑이 선포한 'Dream Together for Better Earth(다시 지구를 새롭게, 함께 더 나은 지구를 위해)'라는 ESG 경영 슬로건 아래, 롯데쇼핑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과제를 규정하고 최근 성과 및 향후 계획과 함께 새로 개발된 ESG 정책까지 수록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롯데쇼핑이 중대성 평가를 통해 ESG 경영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및 감축'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 '인권 중심 경영'의 3개 주요 이슈를 선정과정과 이와 관련한 성과 창출 노력도 수록했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롯데쇼핑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대비 12.5% 감축했다. 87곳의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해 전력 6.1기가와트(GW)를 생산하고 2802t의 온실가스 저감

효과를 달성했다.

롯데쇼핑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204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하는 한편 올해 연도별 탄소 절감 목표와 세부적인 실행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ESG 경영의 표준화 추세와 더불어 여러 파트너사들과의 협력 관계가 중요한 유통업체의 특성을 반영해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이라는 이슈를 설정했다. 협력사 ESG 자가진단표 도입, ESG 온라인 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했으며 올해 대상을 확대하는 등 파트너사와의 ESG 동반성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속가능한 경영 환경 구축을 위해 기업 구성원의 인권을 존중하고 성장과 행

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인권 중심 경영'을 주요 이슈로 선정했다. 롯데쇼핑은 세계인권선언·유엔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원칙·유엔글로벌compact(UNG),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등을 바탕으로 '롯데쇼핑 인권경영 정책'을 수립했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회사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요구도 커져감에 따라 ESG 경영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며 "고객을 위한 더 좋은 지구,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진심 어린 소통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윤 기자 nykim@skyedaily.com



롯데쇼핑 본점 에비뉴에서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여성 아티스트의 작품이 걸려 있다. 롯데쇼핑

www.papercorea.co.kr

## 폐지, 쓰레기가 아닙니다

쓰레기로 생각하고 버리는 박스·헌책·잡지·신문  
페이퍼코리아에서는 소중한 자원이 되어 새 쇼핑백·새 포대지·새 신문이 됩니다  
재생지의 가능성을 끊임없이 개발하는 자원순환 선도기업, 페이퍼코리아!  
자원의 미래 가치를 생각하며 더 건강한 친환경을 만들어갑니다

STEP 1  
가정, 사무실 분리 배출

STEP 2  
수집 및 선별

STEP 3  
원료공정

STEP 4  
제지공정

STEP 5  
재생지 완성

생활 속의 친환경-페이퍼코리아

**PAPER COREA**